

시니어 순모임(3월)

인도: 순장
대표기도: 말은이

찬 양 — 찬송가 183장(빈 들에 마른 풀 같이) — 다같이

대표기도 — 말은이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말씀 나누기 — 말은이

합심기도 — 다같이
1.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그 백성과 그 땅 가운데 임하소서
2. 대심방을 통해 각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광고 — 말은이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편 23편을 순모임과 각 가정에서 부지런히 함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생명나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월 없음	2월 월돌프	3월 반석(1차)	4월 매일 은혜
7월 리브개(오후)	8월 은유	9월 참소망	10월 반석(2차)	11월 브리스토
14월 없음	15월 용달샘2(1차)	16월 용달샘2(2차)	17월 없음	18월 없음

3월 20일~ 31일 50주년 기념 성지순례 인도

183 빈 들에 마른 풀같이 (통일 172)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D. W. Whittle, 1882
대림 마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렘 34:20)
SHOWER OF BLESSING: 8.7&7.REF. J. McGranahan, 1882
성령 강림

보통으로

1.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시 들은 나의 영 혼
2. 반가운 빛소리 들 려 산 천이 춤을 추 네
3. 철따라 우로를 내 려 초 목이 무성하 니
4. 참되신 사랑의 언 어길 수 있사 오 라

주 님이 약 속 한 성 령 간 절 히 기 다 리 네
봄 비로 내 리는 성 령 내 게 도 주 음 소 서
갈 급 한 내 심 령 위 에 성 령 을 부 으 소 서
오 늘 에 흠 족 한 은 혜 주 실 줄 믿 습 니 다

후렴
가 물 어 메 마 른 땅 에 단 비 를 내 리 시 듯

성 령 의 단 비 를 부 이 새 생 명 주 음 소 서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3rd) Bb → G F7 → D7 Eb → C Gm → Em

주여,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나이다, 누가복음 3:1-6절

최근 에스베리 부흥운동을 통해 미국의 영적부흥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J.I.Packer는 부흥을 성령과 동행, Steps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광야의 소리로 헌신한 요한을 보면서 이 시대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참된 부흥에 대하여 깨달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 위에 임했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 광야에서 약대털 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에스베리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월모어라고하는 도시는 인구 6천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이 곳의 대학교 채플 시간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날은 잭 미어크립스, Jack Meerkreebs 젊은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설교 후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성령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거든 이 예배당에서, 이곳에 모인 영혼, 이들의 마음, 이들의 가슴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학생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19명의 학생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불씨가 되어 타오르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부흥은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한 복판에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역사 앞에 나타나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4 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번 에스베리 부흥 현장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오랜 세월 부흥 위해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홍수레오 목사님은 2015년에서 2016년에 방문교수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풀 타임으로 에스베리 대학교 부흥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인판을 목에 걸고 복음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부흥의 단비가 에스베리에 임한 것입니다.

셋째, 부흥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 베풀 때 수많은 사람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냐?’, 그의 대답은 짧고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라”, “엘리아냐?”,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베리 예배당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겸손입니다. 설교했던 당사자 미어크립스 목사가 몇 차례 강조하는 것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에 대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 우리 삶에 부흥을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 기도가 절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통해 언제라도 역사 이루십니다.